

# 換率變動과 油價政策의 方向

夫 太 煥 (動力資源部·油政課長)

換率이 변하면 따라서 物價도 변한다는 일반관계는 상식화되어 있으나, 物價 가운데서도 油價에 보다 큰 影響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關聯業界, 專門家등을 제외하고 그다지 실감있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換率變動이 物價全般에 주는 影響을 정리해 보고 이어서 油價에 주는 影響을 糾明하여 그에 따른 油價政策의 方向을 模索해 보는 것이 순서 일 듯 하다.

## I. 換率變動과 物價變動

### 1. 物價變動要因中 換率의 比重

1964년 5월부터 單一變動換率制로 시행되던 우리나라 換率制度가 80년 1월부터 複合通貨바스켓方式을 채택하여 가격으로서의 換率機能이 보다 강화된 이래, 換率과 物價變動의 推移를 보면, 換率과 物價와의 어떤 관계가 쉽게 드러난다.

80년末 換率은 659원 90전으로 前年末對比 36.3%, 81년末은 700원 50전으로 6.2%, 82년末은 758원 80전으로 6.9% 상승하는 등 換率은 계속 上向變動해 왔으며, 물가는 都壳物價上昇率이 80년 38.9%, 81년은 20.4%, 82년은 4.7% 上昇勢로 변해 왔다.

물론, 物價決定에 影響을 주는 요인에는 換率만이 있는 게 아니라, 需要側 要因으로서 總通貨, 財政收入 및 支出, 輸出등이 있고, 供給側 要因으로는 換率外에 賃金, 金利, 輸入原資材價格등이 있으나,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要因 가운데 換率變動效果가 가장 크고, 다음이 賃金, 그 다음이 金利順으로 물가변동에 影響을 주고 있다.

要因別 物價影響

(單位: %)

要 因		短期 영향	長期 영향
需要側要因	總 通 貨	0.064	0.091
	租 稅 收 入	-0.017	-0.024
	政 府 支 出	0.020	0.029
	輸 出	0.036	0.052
供給側要因	勞 動 費 用 (賃 金)	0.152	0.218
	歸 屬 賃 賃 料	0.141	0.201
	(金 利)	(0.097)	(0.139)
	換率 또는 輸入原資材價格	0.216	0.310

위 표는 각 物價決定要因이 1% 變動時 物價變動影響으로서 換率 또는 輸入原資材가 1% 상승하면, 물가는 단기적으로 0.216%, 장기적으로 0.310%나 影響을 받는 데 비하여, 總通貨, 財政收入 및 支出, 輸出 要因등은 長短期 影響이 0.1% 미만이며, 賃金 및 金利 등도 長短期 影響이 0.1~0.2% 수준으로서 換率보다 影響의 폭이 적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物價決定要因 가운데 換率 또는 輸入原資材價格 要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 工產品의 原價構造上 輸入原資材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취약성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다른 요인과 달리 換率變動이 物價變動에 보다 예민하게 影響을 주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해 주고 있다.

### 2. 換率變動의 物價에의 寄與度

換率變動이 물가변동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보면, 換率上昇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影響은 個別商品의 생

산에 直·間接적으로 투입되는 輸入原資材의 비중과 換率上昇에 따른 元貨表示輸入價格상승에 의한 價格上昇要因이 主宗을 이루나, 그외에도 그로부터 派生되는 貨金上昇, 수요의 증가 및 期待心理 등의 상호작용도 경시할 수 없다.

換率이 10% 상승할 경우, 全都売物價는 약 6% 상승하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이를 전제로 輸入原資材價格이나 換率變動이 비교적 안정됐던 66~71년과 77~78년의 都売物價推移를 보면, 각각 연평균 8%, 10.9% 상승하였고, 換率은 각각 4.7%, 0% 상승하여 都売物價上昇에 각 37.5%, 25.7%의 寄與度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石油波動 등으로 輸入原資材價格이 급등하고, 國際收支惡化와 더불어 換率上昇幅도 높았던 72~75년과 79~81년의 都売物價推移를 보면, 각각 21.6%, 26.4%나 상승한데 대하여 換率은 각 8.4%, 12.1%가 상승하여 都売物價上昇에 각각 82.8%, 66.5%나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換率變動分의 他部門吸收

換率이 상승하면 輸出入商品의 国内價格은 그만큼 상승된다. 輸入商品價格이 오르면 輸入商品이나 輸入原資材를 사용하는 산업의 直間接投入比重에 따라 코스트引上壓力을 받게 되므로 이는 곧 자연스럽게 国内物價에 派生된다.

한편, 換率상승에 따라 輸出商品價格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나, 国内供給能力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輸出增加物量만큼 国内供給物量이 줄게 되므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換率상승에 따라 輸出入商品의 国内價格이 오르면, 當該商品의 国内생산이 확대되고, 이에 투입되는 生産要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生産要素의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어떻든 換率變動幅의 国内상품 및 生産要素價格에의 轉嫁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個別價格에 영향을 불가피하게 주게 되나, 生産製品市場과 生産要素市場에서의 需要移動과 代替性에 따라 價格轉嫁의 幅과 모습은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게 마련이다.

만일, 個別商品의 성격상 換率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을 製造業體의 生産性向上 등으로 自体吸收가 가능하다면, 換率變動分을 반드시 가격에 轉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換率이 상승되더라도 수출물량의 증대를 위하여 外貨表示輸出價格을 換率상승폭만큼 인하하거나, 輸入物量의 증진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外貨表示輸入價格을 그만큼 인하시킬 수 있다면 換率상승폭의 가격에의 轉嫁幅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産業構造上 輸入原資材의 비중등을 고려할 때, 換率상승폭의 가격에의 轉嫁외에 他部門의 흡수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그 폭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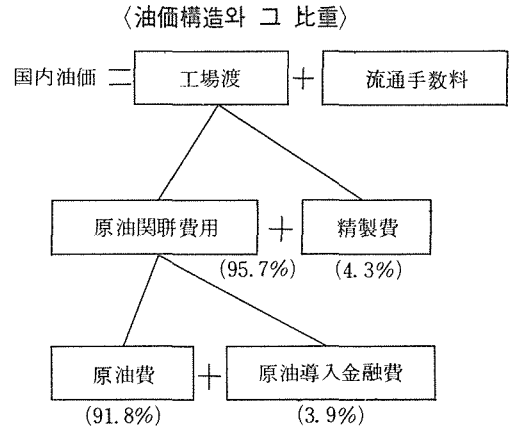
## Ⅲ. 換率과 油價

앞에서 換率變動과 물가와 의 일반관계 즉, 物價決定要因 가운데 換率要因이 가장 크며, 그에 따라 실제로 換率상승이 物價상승에 대한 寄與度도 매우 높으나, 換率상승폭의 價格의 他部門의 轉嫁폭은 매우 좁다는 등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 이같은 일반관계가 油價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는 가를 살펴보자.

### 1. 油價構造上 換率의 位置

国内油價는 크게 原油代價關聯費用과 精製費로 되어 있고, 原油代價關聯費用은 原油費와 原油導入金融費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하면, 国内油價構造는 原油費+原油導入金融費+精製費로 3분되며, 原油費는 原油價格(FOB), 原油輸送費, 国内到着附帶費(방위세, 무역특계자금, L/C 개설비등), 基金(안정, 비축, 개발) 및 關稅(CIF의 5%)로 구성되고, 原油導入金融費는 原油導入유전스 사용에 따른 120~180日間の 短期外貨借入金金融費이다.



油價構造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 原油代關聯費用이 95.7%나 차지하며, 다음으로 이 가운데 3.9%를 차지하는 原油導入金融費의 존재이다. 原油導入關聯費는 對外決濟日의 달러貨의 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되므로 國內油價構造中 95.7%는 換率變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換率變動으로 인한 물가에의 영향 가운데 油價에의 영향이 제일 클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油價構造上 또 하나의 특징인 3.9%를 차지하는 原油導入金融費도 자금의 규모로 보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나라에 도입되는 原油의 代金を 지불하기 위하여는 매일 약 120億원의 資金이 소요되나, 이 자금의 확보에는 産油國에서 原油船積, 國內到着, 通関, 精油社탱크入庫까지 약 30日, 原油在庫期間 약 20日, 製品在庫 약 20日, 販賣後 代金回収期間 약 30日 모두 합하여 약 100일 정도의 期間이 필요하다. 매일 120億원, 100日동안 合計 1조 2천億원을 産油國에 지불해야 하는 바, 이를 모두 國內金融으로 충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약 23億달러에 달하는 外貨를 國際金融市場에서 短期借入 조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실은 대규모의 資金去來가 수반되는 精油産業의 特性上 불가피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형태로서 精油産業이 존속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換率이 상승되면 原油費外에도 지불해야 할 外貨債務과 그 利子가 그만큼 증대된다.

國內油價變動狀況

区分 時期	國內油價		基準國際原油價		油價反映換率		年間換率 上昇率(%)
	複合單價 (원/B)	引上率 (%)	FOB價格 (\$/B)	上昇率 (%)	원/B	上昇率 (%)	
	(10,090)	—	(22.04)	—	(485.0)	—	
80. 1. 29	20,869	59.43	28.8	30.7	582.90	20.2	36.3
8. 24	23,940	14.72	30.58	6.2	620.30	6.4	
11. 19	26,948	12.56	31.97	4.5	658.30	6.1	
81. 4. 19	30,990	15.0	32.44	1.5	677.80	3.0	6.2
11. 29	32,855	6.0	32.92	1.5	690.0	1.8	
82. 3. 11	31,930	△2.82	32.77	△0.5	714.30	3.5	6.7
83. 2. 6	31,394	△1.68	"	—	"	—	
4. 19	29,899	△4.76	27.60	△15.8	765.6	7.1	
計		187.8		25.2		57.9	

(註) 油價決定要因은 이외에도 국제금리, 환차손, 정제비등이 있으며, 國內油價引上率은 이를 모두 감안하여 決定됨.

## 2. 換率上昇의 油價에의 影響

換率이 오를 경우 國內油價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換率 1% 上昇時 精油社에는 연간 약 649億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油價에는 약 1.3%의 인상요인이 發生하게 된다.

(換率 1% 上昇時 追加費用)

- 原油費增加 : 472億원
- 換差損 : 170 "
- 支給利子 : 7 "

計 : 649億원

換率 1% 上昇時의 油價引上要因은 原油費 상승폭 0.92%의 직접적인 인상요인과 外貨債務의 元貨表示金額의 증가에 따른 0.38의 追加引上要因으로 合計 1.3%의 인상규모가 되는 것이다.

위 표는 80.1 變動換率制 실시 이후 國際原油 및 換率變動에 따라 조정된 國內油價의 변동상황으로 國內油價變動에 換率變動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금년에도 지난 4월 19일 油價全面調整時에는 당초의 經濟運用計劃에 반영된 換率上昇幅 연간 3%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후 換率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8月末 현재 이미 5%를 넘어 섰고 이에 따라 精油社는 대략 1천億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같은 추가비용은 불가피하게 次期油價調整時에 油價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같은 油價인상요인의 累積은 결과적으로 精油産業의 財務構造의 不實化, 原油導入유전스 사용 규모의 증가, 그에 따른 國際收支에의 영향외에도, 累積된 인상요인을 國內油價에 일시에 반영할 경우, 여타 物價에의 충격등 國民經濟全般에 심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은 지난 80년 1월 變動換率制 실시 이후 油價의 95.7%나

차지하는 國際原油價와 換率은 간단없이 변동하지만, 國內油價는 일정기간동안 凍結되어 있기 때문에 換率變動등 油價調整要因發生期와 실제 油價調整時期와의 時點不一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 油價構造는 原油關聯費用이 95.7%나 차지하고, 精製費는 4.3%에 지나지 않음을 보았다. 이는 곧 國際原油價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換率이 다소 변동하면 油價決定要因中 95.7%는 따라서 변동하게 됨을 의미하고, 또한, 이 부분은 不可抗力의인 統制範圍 밖의 비용으로 換率變動幅의 價格轉嫁 이외에 他部門흡수는 다른 물가의 그것보다 더욱 그 幅이 좁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Ⅲ. 油價政策의 方向

이러한 換率變動과 油價調整 時點과의 '괴리의에도 現行 油價管理制度는 國內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란에서는 現行 油價管理制度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油價管理制度의 評價

##### (1) 石油政策의 基本課題

石油政策의 기본과제는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두가지 政策目標의 조화에 있는 바, 이러한 기본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消費地 精製主義의 基調를 유지하면서 市場競争原理를 도입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및 보호를 축소하여 民間企業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정부는 최소한의 통제와 調整機能만을 留保하는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

##### (2) 與件의 變化

이러한 관점에서 現行 油價制度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간 변화된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그 동안 우리 경제의 質的·量的 확대와 성장으로 經濟運用의 기본골격이 民間主導型 運用基調로의 이행이 불가피해졌고, 價格管理도 事前規制에서 事後指導로 전환되고 있으며,

둘째, 사회환경이 개방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通商및 經協活動의 확대와 民間交流의 증대로 問題接近方式도 利害當事者間의 타협·조정에 의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能率, 效用및 창의성의 극대화를 보다 重視하게 되었고

세계, 정부의 기능은 開發年代의 적극적인 기능이 퇴색되고 經濟主體의 상황 변화에의 신속하고 신축적인 対応能力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現行 制度의 反省과 評價

國內 石油製品이 최초로 생산된 1964年 이래 完全 政府統制價格制度로 일관되어 온 現行 油價制度를 반성하여 보면,

지난 20여년간 이 제도는 獨寡占下에서 가격의 不當引上을 억제하고, 價格調整時點의 造作으로 靜態的 物價管理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脆弱産業의 保護및 民生安定에 기여한 일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① 民間企業의 損益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경쟁원리에 입각한 企業經營이 소홀해지고, 政府統制에 安住하여 自体經營合理化및 原價節減努力이 부족하며, ② 價格調整의 硬直性으로 인한 一時 大幅調整이 불가피하여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며, ③ 油種間 價格構造의 歪曲으로 인하여 油類需給이 장기 안정적으로 自動調節될 수 있는 기회의 定着을 阻害하는 동시에 일부 油種의 生産施設 투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④ 또한 消費者價格까지 정부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市場競争原理介入 餘地가 극소화되고, 消費者價格의 均一결정으로 國內 전체 輸送費에 낭비 요소가 내재되고 있다.

#### 2. 油價管理制度 改善의 基本方向

##### (1) 우리의 與件과 制約

現行 油價管理制度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의 여건과 제약을 살펴 보면,

海外部門으로는 경쟁여지가 거의 없는 原油確保, 가변성이 심한 國際石油事情, 遠距離에 위치한 國際石油市場등이며, 國內部門으로는, 精油産業및 流通業體의 寡占狀態와 모든 비용을 精油業에 轉嫁할 수 밖에 없는 脆弱性, 價格彈性이 미미한 石油需要, 石油價格이 電力, 수송등의 原價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 특정산업 및 民生安定 고려의 불가피성, 國際石油去來의 경험과 능력의 脆弱性등의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 (2) 油價管理制度 改善의 基本方向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油價制度는 원칙적으로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하여 경제의 능률과 效率性を 제고 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經濟·社会的 衝擊을 최소화하되,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並行, 補充되는 것이 필요하다.

① 競争制限要因을 최소화하여 自律競争要件을 조성 하되 國內 統制範圍外的 부담은 共同 配分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國際 原油價의 多元化時는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다시 도입하고, 多邊化 政策原油는 現행과 같은 별도의 지원조치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價格構造의 국제화로 에너지價格의 中立性を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또한 需給安定을 위한 정부의 최종적이고 최소한의 통제, 調整機能을 留保함으로써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인 石油政策의 기본과제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3. 制度改善의 段階的 推進方案

油價管理制度 개선은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이라는 石

油政策의 기본과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면서, 精油業 效率性的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에의 寄與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油種間 價格構造의 歪曲, 石油製品의 連產品의 性格, 가변성이 심한 國際石油市場 등 내재되어 있는 問題點을 인식하면서 各 經濟主体에의 인위적인 衝擊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단계적 推進方案을 생각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案이 될 것이다.

1 段階: 價格 自律化를 위한 生産者·消費者·流通業者의 適應能力 배양

- 油種別 公式 賦與

- 換率 등 原價構成要因의 적극 반영

2 段階: 上記 公式 賦與 對象 品目 축소

3 段階: 1~2個 油種을 제외한 全油種 價格 告示 폐지

이러한 단계별 추진방안은 經濟要件의 변화, 國際石油市場의 변화 등에 따라 伸縮性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各界의 광범한 의견을 綜合하여 慎重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 産油国短信 ●

# Norbec, 사우디原油 販賣契約 締結中

사우디原油를 公式價格으로 現物販賣하기 위해 設立된 Norbec社가 現在 Arabian Heavy原油를 包含한 사우디原油를 Package로 하여 供給契約를 締結하고 있다고 Norbec으로 부터 原油를 購買하고 있는 石油会社들의 측근 소식통들이 전했다.

Norbec社는 처음에는 단지 Arabian Light와 Arabian Medium原油만을 오파했었는데 최근 現物市場에서 Arabian Light 原油는 公式價格보다 30센트가 낮은 28.70弗에, Arabian Medium原油는 公式價格 水準으로 去來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Norbec社가 Arabian Heavy原油를 去來에 包含시키지 않을 경우 Norbec社와의 去來에 별 興味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現在 Arabian Heavy의 現物價格은 公式價格보다 65~70센트 높은 水準에서 形成되고 있다. 이같이 Norbec社가 그들의 오파에 Arabian Heavy 原

油를 包含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Aramco持分会社들은 사우디에서 生産하는 Arabian Heavy는 자신들이 大部分 處理하고 있어 Norbec社가 Arabian Heavy原油를 오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當社의 휴스턴지사가 보내온 Norbec社에 관한 情報에 따르면 同社는 사우디의 石油省과 아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美国 会社로서 사우디 石油省의 승인하에 사우디産 原油를 브로커의 중재 없이도 直接 販賣할 수 있으나 Petromin과의 現 關係를 해치지 않기 위해 Petromin으로부터 原油를 購買하고 있는 顧客과의 去來는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同社는 本社를 스위스에 두고 있으며 6週前에 휴스턴支社를 개설하고 現在 런던支社 개설을 準備中에 있다.